



**프로필** 梁會淑 풍진철강 대표

- 출 생 : 1930년 전라남도 광주
- 가 족 : 姜貞子 여사와 3男 2女
- 參 戰 : 1950. 7월 학도병 자원 입대
  - 1950. 10. 10 제1훈련소 하사관학교 入校
  - 1951. 2월 제6사단 2연대 수색중대 배치
  - 1952. 6. 23 금성지구전투 참가  
(화염방사기 운용 射手)  
척추 및 복부, 左手 부상  
제18 육군병원 入院
  - 1953. 5월 명예 제대
- 창 업 : 1978년 풍진철강공업사 설립
- 서 훈 : 1982년 국민포장(보훈처 추천)

바쁘신 사업일정과 함께 거동도 불편하신 가운데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천만 이산가족을 모고온 6·25가 발발한지도 어언 마흔세개의 성상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국산하를 지키기 위해 유명(幽明)을 달리하시거나 전상(戰傷)을 입으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우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시기 싫은 그날의 기억이시겠습니까만, 전후세대인 오늘의 젊은이들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취재 序言)

6·25 동안에 참전하시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6·25** 가 발발하던 때가 (고급)중학교 5학년때였지요. 당시 전남 광주에는 여순 반란사건 이후부터 20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6·25가 발발하고 호국단 간부들의 협의아래 50여명이 학도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후퇴가 이어지자 학도병들을 귀가조치시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어 부산에서 하사관학교에 입교하였습니다. 3개월인가 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되었지요. 분대장으로 수색대에 복무하였습니다.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상(戰傷)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염** 방사기가 신무기로 도입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사대」인 줄도 모르고 신바람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후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금화가 아니라 금성지구 전투예요. 화염방사기를 적의 5~10m 앞에서 쏘야하기 때문에 능선을 타고 올라갔지요. 무엇을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화염방사기와 함께 굴렀지요.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운 좋게 살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름조차 잊혀져 갑니다만 적의 유탄에 맞고 굴러떨어졌을때 구출(운반)해준 김일병(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을 만나보고 싶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전북 무주 구천동이 고향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학도병에 이어 하사관으로 참전하시고 전상까지 당하셨는데, 서훈으로는 무엇을 받으셨는지요?

**화랑** 무공훈장등 두어개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증서가 없어(분실되어) 못 찾고 있지요. 당시에는 적을 죽이겠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기억도 없이 사경을 헤매며 운반(후송)되었는데, 사물인들 온전했었어요? 환자 옮기기도 경황이 없는 전쟁터에서...

명예제대후 어렵게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대한통운** 을 한때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넘는 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해서 1969년 10월에 서울로 上京했지요. 이후 천막 생활을 하며 고철장사부터 닥치는대로 일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해준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공장을 담보로 친구와 사업을 합작하다가 파산되고, 상처가 재발되어 1976년 12월에 성바오로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옥상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지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상이용사가 생활의 곤경을 극복 못한다는게 말이 되냐 생각하며 「나의 절망은 가족의 절망」임을 깨닫고 순간의 어려움을 넘겼습니다.

전상(戰傷)의 후유증은 없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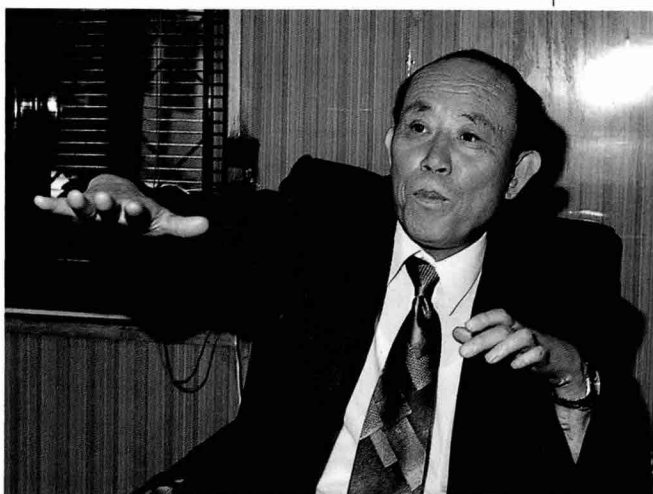
**척추** 를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남들이 볼때 거만하게 보이겠지만, 가만 있으면 통증이 심해 견디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보훈병원에서 주1회씩 「링겔」을 맞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될수 있으면 약을 복용치 말라시며 진통약을 제조해 주십니다. 비상용으로 비치하지요. 심할때는 복용 안할수가 없습니다. 3~4개월에 한번은 쓸수 밖에 없어요. 핫-백(Hot-Bag)은 잠시도 떨어질수 없는 애용품입니다.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존** 하지 않고 살수 있다는게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보훈처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며, 굳이 덧붙인다면... 장애자(전상용사)가 정상인과 같을수는 없습니다. 특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라면 우선권을 주었으면 하는 희망뿐입니다.

스스로 근면·검소·절약·절제하는 길뿐입니다. 경제가 하루빨리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길 빕니다.

(対談：김영태 편집장)



남들이 볼때는 거만하게 보이지만 척추를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지요. 기계 돌아가는 재미로 삼니다. 안 돌아갔으면 아마 폐인이 됐을 겁니다

**6·25** 가 발발한지 어언 43년... 1천만 이산가족을 모고온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恨을 남긴 휴전이 성립되지 벌써 40개 星霜을 맞습니다. 적의 전차등 우세한 화력과 병력에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해본채 패퇴만을 거듭했던 그 시절의 아픔과 악몽을 이에 다시금 생각해보며 잊을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그날의 자취를 되새기며 自主國防의 중차대함과 함께 安保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맥락에 발맞추면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25 당시 학도병으로서, 또 하사관으로서 참전하여 평생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들이요, 대한의 戰傷勇士인 안회숙 사장님을誌面に 소개합니다.

본인이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는 가운데, 보훈처 공보실의 협조아래 긴밀하고 간곡한 부탁속에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양 사장님은 지난 1978년 창업 이래 인근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현충일과 年末에 年 2회씩 불우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음을 참언합니다 (편집자 주)